



즉시 배포용: 2017 년 1 월 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 년 시정보고의 여섯 번째 제안서 발표: 금융 서비스 업계의 치명적인 상습행위 금지 조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의 치명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고객을 진일보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서를 발표하여 웰스 파고(Wells Fargo) 은행의 스캔들과 같은 금융과 보험 업계의 특정 위법행위 상습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주 금융 서비스 감독(Stat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Services)에 대한 권한 부여를 추진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계의 금융 중심으로서 우리는 고객들한테 사기 치고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웰스 파고(Wells Fargo) 센터 스캔들에서의 체계적인 월권행위는 허용할 수 없으며 규제 역할을 해야 할 뉴욕 정부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자 중대한 조치를 하여 이런 업계의 상습범을 완전히 금지하려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인솔하에 뉴욕은 강력한 금융 규제와 고객 보호 조치 설립에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2011 년에 주지사가 기존의 금융과 보험 부서(Banking and Insurance Departments)를 합병하고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를 설립한 이래 고객 보호를 위한 집행권 행사를 통하여 수십억 달러를 절약함으로써 금융 규제의 선두주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 업계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뉴욕의 금융 기업과 대출 활동에 대한 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지사는 DFS 감독 권한을 늘려 금융 서비스 업계의 특정 상습 행위를 금지하는 주 정부의 노력에 한 발 더 나가려 합니다. 특히, 새 법안은 뉴욕 금융서비스법에 새 조항을 추가하여 만약 감독기관에서 청문회를 통하여 특정 기업이 해당 업계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직접 해치는 심각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 혹은 보험 업계에서 퇴출할 것입니다.

이 제안서는 뉴욕주가 최근의 웰스 파고(Wells Fargo) 은행에서 보여준 사태를 예방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최신 조치입니다. 해당 은행은 고객에게 통보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 계정을 만들어 제품을 팔아온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은행에서 판매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주는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스캔들이 있고 난 뒤 DFS는 뉴욕에서 상여금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